

모험의 서재

어른들의 그림책 여행기

한지수



모험의 서재

『모험의 서재』 창간호는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의 세계를 탐험하고, 감성과 사유의 공간을 여행하는 이야기들을 엮었습니다.



© 정민혜 _ 책장 속의 보물들

Cover Story



표지 제목 책장 속의 보물들

작품 설명 수많은 이야기와 책이 모여 하나의 큰 책장을 이루듯이, 서재는 독자의 취향과 삶의 경험을 모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독서의 즐거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작가 소개 정민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 디자인 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도서출판 모험의 서재

발행일

2024년 06월 01일

발행인. 편집위원. 번역위원. 아트 디렉터. 구독관리

한지수

발행인 소속

Université Sorbonne Paris Nord UFR LLSHS Master 2
Pro MTI 2023/2024

이메일

jisoo.han@edu.univ-paris13.fr

출판인 번호

12012010

인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5-72, 광고공장

감사의 글

친애하는 지도 교수님, 논문에 도움 주신 선생님들,

저의 졸업 논문 작업을 끝내며 이 멀고도 소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Lévêque 교수님과 Sinha 교수님의 지혜로운 조언과 격려 덕분에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고,
학사 시절부터 항상 저를 믿어 주시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논의하며 힘을 주신 네 분의 그림책 전문가 선생님들에게도 매우 고맙습니다.
또한, 5개월간의 인턴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아트앤컬처 박상태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그림책에 대한 제 열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동 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작게나마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값진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지수

2024년 6월

모험의 서재

어른들의 그림책 여행기



005 : 감사의 글
008 : 발행인 한마디

I .미래를 여는 책

011 『놀이와 꿈, 그리고 이야기』
우리 아이를 위한 그림책 세상 : 그림책 정의

II .어른과 아이의 대화: 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019 『그림책으로 듣는 어린이집 교사의 목소리』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교사 역할 탐구 :
허세림 선생님 인터뷰

029 『색으로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그림책의 중요 요소, '색채' 탐구

033 『그림책의 매력을 담다』
한국 아동 문학 출판 시장의 특징 :
스폰북 김유진 편집자의 시선

045 『우리 함께 읽는 그림책』
에디터의 북 큐레이션

049 『마음의 책꽂이를 가꾸주는 정원사』
이수지 작가 특집

2024.06 Vol. 1

우리 아이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학 잡지



051

『그림책을 품은 책방』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복합 문화 공간 :
한불 통번역가 이슬아 책방지기와의 만남

059

『그림책 세상으로 떠나는 여정』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소개

063

『세계 어린이와 만나는 책의 날개』

한국 아동 문학의 국제 교류를 위한 활동 :
KBBY 심향분 전임 회장과의 대화

073

『책과 이야기의 즐거운 모험을 더 가까이에서』

한국 어린이 도서관 소개

077

III. 어른의 보살핌, 아이의 상상력

발행인의 편지 : 맺는 말

079

IV. 구독 안내 & QR code

081

V. 인용 문헌

KCI 등재 논문

웹 사이트

사진 자료

『모험의 서재 - 어른들의 그림책 여행기』

1호 발간을 기념하며...

발행인으로서, 이 잡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잡지를 통해 그림책을 읽고 만들어가는 어른들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감성과 사유의 공간을 열어 보려 합니다.

한 권의 책에는 작가의 수많은 감정과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삶과 내면세계를 표현한 책을 통해 독자는 즐거움을 얻고 그 과정에서 언어 발달,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과 이해력 강화까지 도모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글과 그림으로 아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풀어내는 그림책은 무한한 상상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그림책 읽기를 통해 성숙해지고 지적, 정신적 성장까지 도모하며 주체적인 독자로 성장해갑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성인의 도움으로 그림책을 즐기며, 어른의 지도에 따라 그 문화권에 맞는 지식과 태도를 학습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림책의 창작과 출판과 구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도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책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잡지는 아동 독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림책’과 그 문학의 뿌리를 심어주는 ‘어른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림책을 읽고 만들고 소비하는 어른들의 시각을 담아내며, 그림책을 새롭게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림책을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학 장르라는 점이 아주 큰 매력이고 가치입니다. 그림책을 마주하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어른들의 생각과 입장을 소개하며, 그림책을 통해 얻은 영감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그림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발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독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그림책을 읽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문학적 즐거움과 감수성 발달을 도모하며, 그들의 삶에 영감과 의미를 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잡지를 읽는 성인 독자가 앨범과 관련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그림책을 소개하며 두 문화의 다양성을 조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여행하고, 독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발견과 배움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여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그림책을 읽는 어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귀중한 격려가 있었기에 이렇게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림책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이며,
우리 잡지는 그 다리를 넘어 꿈과 상상의 모험을 떠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한지수

“

놀이와 꿈, 그리고 이야기

우리 아이를 위한 그림책 세상

”



© midjourney



그림책의 정의

그림책은 간단한 문장들과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 밀접하게 맞닿아 표현되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글과 그림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림책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은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감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감정을 자극하거나 상상을 풍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하고 순수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단순히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문학과 예술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 삶의 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책이 유아기 아이들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언어 발달을 촉진하며,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사실입니다. 아직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 독자에게는 더욱 완벽한 장난감이자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됩니다. 문맹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그림책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른과 이야기를 보고 듣는 아이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독자 간의 관계나 정서가 안정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잡지에서 그림책 독자는 3·6세로 한정하고 있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내부의 편안한 독서 공간에서 책을 즐기는 사람들

습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과 시각 매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마음을 울리는 짧은 텍스트들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이 결합된 그림책을 읽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6세의 그림책 독자를 위한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서 말했듯이, 그 그림책들을 읽는 어른들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그림책의 출판 과정과 독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그림책을 문학 작품인 동시에 시각예술로 인식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의 매력과 가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정서적 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도움을 받는다면, 성인들은 메말라 버린 감수성을 다시 촉촉하게 채워가며 문학적, 예술적 자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 조명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부

에디터가 바라보는 그림책

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형식도 자유롭습니다. 이런 다채로움을 통해 아이들은 새롭고 수많은 경험과 관점을 간접적으로 얻게 됩니다. 아, 물론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드러나지는 않는지 어른의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게 그림책은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에 슬며시 -혹은 눈에 띄게- 기여하고 있겠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얻고 창의적이고 사고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한국 그림책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 독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채로운 컬러와 정교한 그림과 더불어 한국적 플롯*과 흥미로운 캐릭터들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아동 문학 출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출판사들이 아동 문학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가들과 삽화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먼저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해 봐야 합니다. 아동 문학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어린시절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

*한국적 플롯: 전통적으로, 한국 아동 문학은 동요와 동화가 긴밀히 연계되고, 민족 탄생 신화 따른 토테미즘적 요소가 포함된다. 또,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나 소속의 욕구, 선조들의 생활 풍습에서 강조되는 충, 효, 우애, 신의가 나타난다. 한편, 현대 아동 문학의 플롯은 한글을 활용한 언어유희 등 많은 변수가 가능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도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어른들도 그림책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왕자』* 서문에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레옹 베르트*에게 바치는 헌사 한 줄이 떠오르네요. “모든 어른들은 한 때 어린이였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다.” 이 짧은 구절로 요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늙은 어린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림책을 통해 어른이 되어 잊고 살던 어린시절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아름답고 감성적인 감정을 환기시키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과 텍스트의 조화가 문학적, 예술적인 가치와 즐거움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한국에서 그림책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에게 정보, 지식 전달, 예의범절 훈육처럼 교육적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가르치거나 교육적인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물론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습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그림책 자체의 문학과 미학성의 퀄리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21세기 혁신적인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종이 그림책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더이상 종이책에 머물지 않고 오디오 북, 전자책, 캐릭터 산업,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한 장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시각 예술로 전환이 쉽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인 스마트폰 영상보다 무미건조한 종이 책을 읽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독자의 종이 그림책 독서 참여와 경험을 향상시키고 책 소비의 주체인 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형태의 그림책 출판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
* 『어린 왕자』 : 사하라 사막에 발이 묶인 비행사와 다른 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의 만남을 그린 이야기로, 우정, 사랑, 외로움, 진실과 행복 같은 깊은 주제를 담고 있다. 서문에서 생텍쥐페리는 베르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삶과 창작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베르트를 '어린 소년(petit garçon)'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애뜻한 우정을 보여준 현사이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Antoine de Saint-Exupéry 1900~1944):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행사, 기자. 시적, 철학적 의미가 깊은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특히 1943년에 출판된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하다.

* 레옹 베르트 (Léon Werth 1878~1955): 생텍쥐페리와 깊은 친밀한 우정을 유지한 소설가이자 언론인, 수필가, 미술 평론가

+추가 정보+

아동문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한 작가와 삽화가에게 수여하는 대표적인 한국 아동문학상으로는 창비어린이도서상, 비룡소 황금도깨비상,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 중 하나는 '창비어린이도서상'입니다. 창비어린이도서상은 한국의 주요 출판사 중 하나인 창비에서 주최하는데, 우수한 아동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됩니다. 수상작은 창의성, 문학성, 그리고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고, 한국의 문학계에서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학적인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앵콜립티블 상 (Le Prix des Incorruptibles), 피투상 (Le Prix Pitchou), 마녀상 (Les Prix Sorcières) 등 이 있습니다. 마녀상은 1986년부터 매년 프랑스 도서관협회(l'Association des Bibliothécaires de France), 도서관 사서, 서점 직원, 교사 등 아동 문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됩니다. 프랑스 아동문학계에서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그림책, 소설,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을 수상하며 재능 있는 작가와 삽화가를 발굴합니다. '마녀상'의 이름은 마법사와 같은 판타지적인 이미지를 가져와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흥미를 끌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으로는, 칼데콧 상(The Caldecott Medal), 국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International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s), 볼로냐 라가치 상(Bologna Ragazzi Award)등이 유명합니다.

“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역할 탐구

그림책으로 듣는 어린이집 교사의 목소리

”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림책 세계

KB여의도 어린이집 허세림 선생님 인터뷰



그림책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였지만, 감정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더불어 언어 능력과 정서적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이를테면, 책의 등장 인물들의 상황을 통해 감정 표현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림책을 통해 형성되는 인생의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 사랑, 용기, 책임감 등과 같은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림책 속 이야기들을 통해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책 속 상황을 통해 세계를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기르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긍정적 효과를 위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사회화 과정까지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안내하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그림책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고 문학을 즐기는 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아이들도 올바른 이해와 독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6세의 아동들에게 선생님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공유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중재자입니다. 허세림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일상 생활 주제가 담긴 그림책을 읽고, 그 속의 사회적 가치, 문화적 코드를 어떻게 지도 전달하는지 들어보기로 합니다.

Q.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어린이집 교사 허세림입니다. 현재 서울 KB여의도 어린이집에서 만3세와 4세 혼합연령반에서 17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인간의 심리에 대해 공부하며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시기가 영유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보육교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에 감탄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즉, 아이들의 지적 발전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흥미, 호기심을 위해 빈번한 초과근무와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 외에도 서류업무를 위해 개인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것이 단점인 것 같아요.

Q. 그림책의 주제는 가족, 학교, 예절, 감정, 자연 등 다양한데, 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공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토대로 각 기관의 철학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허세림 선생님

누리과정이란, 유아기에 배움이 필요로 한 큰 카테고리(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나누어 놓은 것인데요. 그 안에서 작은 주제들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유아의 개별 수준과 흥미에 따른 교육을 해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그림책을 선정할 때는 이 ‘누리과정’의 주제와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아이들이 교육적 주제를 가장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림책이기 때문에, 교육적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3월은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달*로, ‘우리반 선생님과 친구’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
*한국의 학기제는 두 학기제로 운영된다. 제1학기는 3월부터 7월, 제2학기는 8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 허세림 - 아이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

담은 그림책, 올바른 정서 표현을 돕는 그림책, 새로운 선생님과 기관에 적응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는 책 등을 배치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과 심미감을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학급의 책꽂이는 교사로서 개인적 기대를 가지고 배치하는 책 30%, 교육적 주제에 적합한 책 60%, 교육적 주제와 관계없이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는 책 10%정도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 허세림 - 그림책 읽기 수업진행 중

Q. 그림책을 중요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아교육은 유아의 자발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림책이야말로 모든 발달영역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마술 연필』, 모리스 샌닥의 『깊은 밤 부엌에서』 처럼 아동 문학은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볼 수 있는 주제이지만 실제 경험이 어려운 내용을 그림책을 통해 접함으로써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림책은 상징적이고 함축적이라 아이들이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위로 받는 것은 물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타인 조망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언어 교육 뿐 아니라 바른 생활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기본생활습관이나 사회관계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그림책은 긴 문장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어휘’와 ‘좋은 문장’을 속도감 있게 경험하며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글과 그림의 관계형성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상상해낼 수 있고 각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발달제영역*을 촉진하고 정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 그렇듯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

켜 심미적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수단이자 그 자체가 가진 가치로 현장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그림책이 아동 교육에 있어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유의 가치가 도구적 수단으로만 희석되는 것을 지양합니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또 하나의 예술 형식이거든요.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내는 의미를 이해하면 그림책을 보는 즐거움과 안목을 훨씬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가 책과 예술에 일생동안 흥미를 가지게 도와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달제영역 = 모든 발달 영역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 허세림 - "제가 발표할래요!" 손을 들고 있는 아이들



Q.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 아이들의 호기심, 궁금증, 집중을 끄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근무하며 신기했던 점은 그림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드물다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림책은 그 자체로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맙게도 "보기 싫다", "다른 것을 하고 싶다" 라고 표현한 어린이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책의 구성을 소개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어린이는 한 번 본 책을 반복하여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림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재미를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책의 앞표지와 뒤 표지, 속표지, 제목, 작가 이름, 면지, 색감, 종이의 재질, 글씨체 등을 아이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림책 속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손인형이나 퀴즈를 통해 그림책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장소, 사건 등을 아이들이 유추해볼 수 있도록 도와면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편입니다.

© 허세림 - 그림책 읽기 수업진행 중



© 허세림 - 아이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



© 허세림 -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 활용 수업

Q. 책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도 진행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래 동화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등장인물이 2~3개로 한정적이고, 대사가 반복되는 간단한 동화의 경우 ‘동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되어 타인 앞에서 연극을 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거든요.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봄을 만나러 간 아기 다람쥐’ 등 동극은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그림책 활동 연계 놀이예요.

5세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글쓰기 및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 내내 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기도 해요. 어린이들이 1년에 약 12 종류의 짧은 그림책을 만드는 거죠. 1년에 걸친 유아들의 노고는 연말 ‘책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타 기관 및 타 학급 또래에게 공개되어 작품을 선보이고, 격려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숙한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그려낸 영상 그림책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겨울에는, 글 없는 그림책 레이먼드 브릭스의 『눈사람 아저씨』, 류재수 『노란 우산』 그림책을 토대로 활동을 진행해본 적이 있어요. 그림책의 빈 공간을 아이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 허세림 - '책 전시회'에서 친구들에게 작품을 자랑하는 시간



© 허세림 - 책 전시회가 진행 중인 교실 활기찬 분위기

매꾸며 자유롭게 지어낸 우리만의 이야기로 녹음하여 음성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저작권 문제로 외부 공유가 어려웠으나 언어 영역에 놀이 자료로 상시 배치하여 한동안 아이들과 글 없는 그림책 이야기 만들기를 즐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
*동극= 동화 연극, 만3세이상의 아이들이 직접 무대소품 제작하고 연극 시나리오 각색하여 연기 데뷔까지 하는 예술 활동의 일환. 전문 배우가 나와 연극 티켓을 구매하여 보러 가는 ‘아동극’과는 차이가 있다.

Q.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이 자발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문학에 대한 애정을 품을 수 있는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계속 강조하듯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예술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을 읽어내는 것이 능동적인 그림책 읽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어른이 옆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어야 해요.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는 어린이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배경 지식과 맥락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그림'을 '읽는' 시도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글 없는 그림책을 읽는 경우, 선생님이 큰 틀에서 주제 설명하고 이야기 전개 방향 설정해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선생님과 조각난 이야기를 한 번 더 연결하고 나면, 스스로 능동적인 읽기의 주체가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기도 해요. 그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 "한마일에~"처럼, 마치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처럼 선생님의 언어 습관이나 관용 표현까지 따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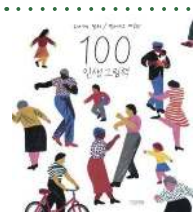


© 허세림 -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

Q. 유아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정도가 궁금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매체에 굉장히 친숙하고, 이 매체 활용 능력 또한 중요한 역량으로 요구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그림책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당연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기관에서는 활용 사례는 없으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북 제작 같은 디지털 그림책 활용에 대한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인 교사 사회에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교육부 산하기관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디지털 매체 우수 활용 사례들을 선정하여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활용을 위해서는 각 교실에 PC 또는 태블릿, 터치 스크린 등 제반 설비 확대 보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늘 그렇듯 새로운 전자제품 구매는 다른 것에 밀려 예산이 늘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관심이 있는 소수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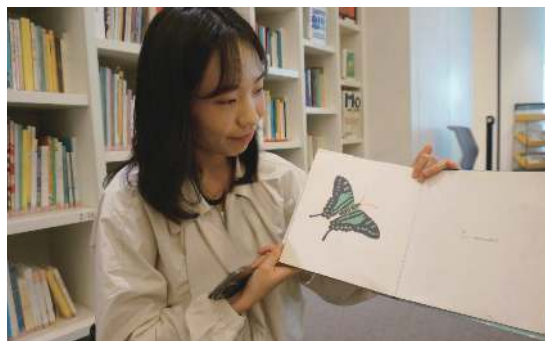


100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저자), 발레리오 비달리(그림),
사계절, 2019

Q.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동 경험하게 된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궁금합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그 나라 언어로 된 그림책을 기념품처럼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세계 모든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각국의 특색이 담긴 그림을 보며 줄거리를 상상해보는 재미와 감동이 상당하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밀 이야기지만, 사실 요즘은 번역기가 잘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도 가능하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독일 여행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그림책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 4년동안 독일어를 배웠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처음, 베를린에 갔을 때, 독립서점으로 유명한 Do You Read Me? 를 찾았어요. 그 곳에서 제 인생의 그림책, 『100 인생 그림책』*을 만나게 됐죠.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책의 25살 페이지를 펼쳤더니 고작 책



책 읽는 아이의 인생 그림책

의 1/4밖에 안 왔다는 것을 깨닫았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남은 페이지가 훨씬 많구나, 지금의 고민도 다 지나가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때만 해도, 30살 페이지에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라는 부분에 사실 공감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곧 30살이 되어가니, 그 말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른이 되니 이야기 이면에 더욱 관심이 생기고, 어렸을 때는 마냥 재미있었던 그림책의 내용이 성인이 되어 읽은 후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동일한 '나'라는 독자이지만 독자가 성장하고 삶의 경험치나 배경지식이 확대되며 그림책을 통해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그림책을 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삶에서 얻은 경험이 더해짐에 따라,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씨앗을 뿌리다

그림책 읽어주기의 방법

허세림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어우러져 예술적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작품임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아에게 있어서 그림책은 생애 처음으로 문학과 미술의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매체가 되겠죠.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기도 하고, 반대로 스스로 자신의 숨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혹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을 알아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림책 읽기를 통해, 책은 단순히 지식습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즐기면서 인생의 깊이를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그림책을 읽는 것은 아이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교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함께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용기를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책 읽기는 그 자체로 소중한 순간이 되고, 아이들에게 평생 가치 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지켜보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

그림책의 중요 요소, ‘색채’ 탐구

색으로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





다른 문학장르와 달리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글과 동등한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각 매체로서 주제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요소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조화를 위한 색채, 페이지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질감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겠죠. 그 중에서도 색채는 그림책의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기에 어린이 독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색채가 풍부한 환경에서 자극을 받을 때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 매체로서 그림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색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 특강에 정민혜씨와 (표지 디자이너)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조형대학에 재학 중인 그녀는 어린이 도서관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과 활기를 고루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구상하고 있었기에, 색채를 통해 공간마다 전달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조성하며, 보다 즐겁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NCS 표색 체계의 실습교재

이화여대의 색채디자인 연구소는 색채와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색채 이론, 색채 심리학, 색채와 문화, 색채와 시각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색채디자인전문가 인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특강은 이화여대 조형대 학장, 최경실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색지각 및 색채체계론, 색채표준 및 측정 등 색의 기본개념에 관하여 이론적인 측면을 학습하고 NCS 표색 체계의 이해 및 실습교재를 통한 색감 찾기 훈련(Color Training)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감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색채 조화를 활용한 좋은 디자인은 지속가능하고 정확하고 정의로우며 아름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교수님의 지도 아래 색감 찾기 훈련에 몰두한 모습

흥미로웠던 부분은 색채가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아동에게 색채 표현은 감각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색상을 볼 때, 뇌에 특정한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뇌는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색채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심리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채는 즐거움과 활기를 주고, 어둡고 무거운 색채는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표현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심장 박동과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는 열정적이고

들뜬 에너지를 만듭니다. 노란색은 젊고 생기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고, 초록색은 자연을 연상시키며 안정감과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그림에서 원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책에서 색채는 미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동시에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도 시각적 경험을 확장시켜 상상력을 키워 나가고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색채 표현은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어린이 독자에게 암시적이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책에서 다양한

색채 경험은 아동에게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감성적 사고의 영역을 확대하여 풍부한 감수성을 증폭시키는, 마치 밤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우리 아이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책의 색채는 시각적인 매력도를 높이는데 사용되곤 하죠. 독자의 시선을 끌며, 작품을 더욱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만들어 여운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상징이나 전통을 나타내며 문화권마다 전달하려는 특정 메시지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로 인해 그림책 속 색채는 어린이 독자에게 강렬한 의미를 가지며, 적절하고 다양한 색채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시각적, 감정적, 창의적 발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림책 속 색채표현은 아동 독자에게 은연중에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장면에서 색채 표현을 어떻게 하였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정서와 감성이 희미해질 수도, 풍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색채 감각은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그림책에서 창작자가 의도하고 있는 색채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동의 보편적인 감정적 심리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전달과 감정 전달에는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특강을 진행해주신 최경실 교수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림책과 색채의 만남을 통해 색채의 의미와 매력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가르침은 그림책 속 색채와 같이 제 마음을 아름답게 물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모험의 서재』 표지를 디자인해 주신 정민혜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잡지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업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CS 표색 체계의 실습교재

“

그림책의 매력을 담다

한국 아동 문학 출판 시장 특징

”



아동 문학 편집 세계로의 초대

스폰북 출판사 길유진 편집자의 시선

이 잡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아동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곰곰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제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늘 모범 독서상을 받았고,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즐거웠던 글쓰기의 추억은 웅진주니어 공식 블로그에 ‘지수의 북칼럼’이라는 카테고리에 서평을 10회 이상 연재한 것입니다. 웅진 주니어에서 출판된 아동 청소년 책을 읽고 정기적으로 서평을 쓰면서 마감일을 맞추고, 제 취향의 책이 아니어도 끝까지 다 읽고, 또래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제 글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철학자 주느비에브 프레이스의 『남녀평등이란 무엇일까』라는 책 리뷰가 독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동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는 어느덧 그림책을 읽는 어른이 되어버렸죠. 자, 옛 추억은 잠시 넣어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동 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 출간되어 독자의 손에 닿을 때까지 부모, 교사, 출판사 등 성인의 관점이 깊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등 생산층과 소비층은 모두 성인이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고 싶다는 목적은 맞물려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 독자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림책을 어른들이 어떻게 출판하고 소비하게 되는지 아동 문학 출판사, 스폰북의 길유진 편집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마음 부른 책을 만드는 곳”이라는 듣기만해도 벌써 지적 포만감이 넘치는 슬로건을 가진 출판사에게 듣는 한국 아동 문학계 이야기 또한 궁금하네요.

스폰북

Q. 어린이 도서 편집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어린이 도서를 편집한다고 하면, 성인 도서 편집에 비해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없이 맑고 밝고 순수한 책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보기와는 살짝 다른 점도 있어요.

주변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편하게 책을 골라서 다독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책이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지세요. ‘과연 이 책을 우리 아이에게 읽혀도 될까?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다른 아이들은 뭘 읽고 있지?’ 이처럼 훨씬 더 꼼꼼하게, 저자와 내용, 분량과 가격까지 전부 따져 보고 고르지요. 어쩌면 어린이책을 고르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책을 만들 때는 어린이의 눈높이와 부모의 시선 두 가지 조건을 똑같이 신경 써야 합니다. 성인 도서가 특정 타깃 독자를 겨냥해서 책을 기획하는 데 비하면, 어린이 도서 편집자들은 책을 만들 때 더 엄격히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스폰북에서 출판된 책을 소개하는 길 편집장의 모습

책이 마냥 순수해서는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부모의 눈이 무섭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내용으로만 채우면 아이들은 쳐다보지 않을테니까요. 이런 현상은 청소년에서 어린이, 미취학 아동으로 연령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책에 대해 끝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이 어린이 출판 편집자의 직업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Q. 그림책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그림 언어는 전 세계 공용’이라는 점에서 그림책의 매력과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글이 없는 그림책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명화를 그림 언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안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징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림책에 대해서 ‘그림 언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림책에는 서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글로, 프랑스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책을 쓰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 만큼 그림책에 담긴 것들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림 언어도 물론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쇠퇴하겠지요. 반면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더 아름답고 재미있고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림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편이에요. 더 많은 작가들이 더 많은 작품으로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져서 누적 데이터가 쌓여야만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midjourney

Q. 한국 아동 문학 시장만의 특이점이 있나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책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비단 아동 문학뿐 아니라, 정보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웬만해서는 책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독서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점이 훨씬 더 큼니다.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별빛이 서서히 희미해지다 결국 사라지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독자가 줄어들면, 어느 타깃 독자층을 설정해서 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해 보자.’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책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넣을 수 없는 셈입니다. 특이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 midjourney

Q. 한국의 그림책은 해외 그림책에 비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이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독자층이 두터우면 이런 저런 실험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독자 인구수를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든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일 년에 책을 마흔 권, 십

권을 읽는다면 그 중에서 대여섯 권은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다룬 책을 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한 학기에 겨우 한 권 책을 읽는다면, 어두운 주제보다는 희망찬 주제의 책을 읽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주로 명랑하고 귀엽고 밝은 그림책이 출간되고,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은 해외에서 저작권을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그림책의 문학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성인 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성인을 위한 그림책을 출판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독자들의 성향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는 중입니다. 소설에서 에세이로, 에세이에서 그림 에세이로, 그리고 그림책으로... 이미지와 영상이 곁들여진 콘텐츠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지요. 물론 이런 현상을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변화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책을 만드는 난이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점이에요.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주로 읽었던 책을 이젠 고학년이 읽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독자들의 변화상을 보면서 이미 그림책을 출간하던 유수의 출판사들은 기존 그림책의 연령을 높이는 작업을 하거나, 어린이를 타깃팅 하는 그림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보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출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외람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백세 그림책’이라는 이름으로 전 연령을 아우르는 그림책을 내기 시작한 건, 줄어드는 독자와 경쟁이 더 치열해진 문화 콘텐츠 시장 등에 맞춰 출판계의 새로운 시장을 모색한 것에 가깝단 생각입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문화를 향유하려는 의도보다 상업적인 요소가 가장 큰 것이죠.



그렇지만 의도야 어떻든, 읽기책을 볼 시간이 없거나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성인 독자들이 다시 책을 읽도록 끌어들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던 작가들이 성인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그림책 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고요. 현재는 작은 독립서점 또는 1인 출판사 등에 의해 성인을 위한 그림책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 콘텐츠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예전 세대가 집에 세계문학 전집 한 세트 씩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첨언하자면, 스폰북에서도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시작으로 성인까지 아우르는 그림책을 기획하고 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에 여러 연령대를 아우르는 갖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일 년에 한 권씩 만들어 나가는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Q. 2023년 한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국내 유아·아동 도서 출판 산업발전의 저해 요소일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는 산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과 성향이 바뀐 것도 막기 힘든데, 고객의 절대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점에서 ‘아동 문학’, 나아가 어린이 그림책을 경시하는 태도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화 콘텐츠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쌓아 올리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국어사전을 거의 열어보지 않습니다. 집에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한 건 오백여 년이 되었지만, 국어사전이 만들어진 건 이제 겨우 백 년 남짓이에요. 일제 강점기, 독일로 유학을 갔던 이극로*는 조선도 조선만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증거로 사전을 보여달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인 ‘조선말 큰 사전’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말의 기준인 사전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수많은 콘텐츠가 탄생했어요. 문학, 시, 어린이 동화, 그림책, 드라마 대본, 노랫말 가사집 등 지금의 현대적 한류를 이끈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 midjourney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전은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직도 사전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교과서를 만들거나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또 평소에도 잘 쓰지 않는 단어들 - 순우리말, 의태어, 의성어, 옛말 등 - 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는 부류이기도 하고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산업이 사라진다면, 사전과 함께 상당히 많은 우리말이 사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문화 콘텐츠의 근간이 사라지는 셈이랄까요. 그 중에서도 책 분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동 문학’이 죽는다면, 글썄요. 그래도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이극로(1898-1979): 일제 강점기에 독일로 유학을 간 한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 한글 보급과 민족 정신 고취를 위해 일생을 바치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 스폰북

Q. 해외그림책을 수입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단 해외 작품을 검토하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문화적인 차이’예요. 극단적인 예로, 일본 작품을 계약할 때 일본색이 짙다고 여겨지는 그림이나 내용이 (기모노라, 신사라, 욱일기 등) 있으면 독자의 정서를 고려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로 옮기기 어려운 말놀이가 주를 이룬다면 아무리 그림이 아름답고 내용이 좋아도 계약을 피하게 되지요. 사실 타이포그래피나 디자인 등은 어차피 원저작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다르게 변형할 수

없어서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역에 들어가면, 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 말인지 부가 설명을 달아 주길 번역자에게 부탁드리곤 합니다. 짧은 만큼 독특한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말로 옮길 때 꼭 파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역 원고와 원서를 함께 보면서 더 나은 우리말 표현을 없을지 고민을 한 뒤, 번역자와 다시 협의를 거치지요. 이 과정 속에서 더 나은 표현이 나올 때도, 아쉬움이 남는 문장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독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그림책이 운율이 있으면서 명랑, 발랄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깔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도 번역서를 낼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Q. 한국 아동문학의 국내외 출판 상황이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내 출판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에서 반응이 좋은 작품들을 해외에 소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본격화되었어요. 특히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한류 붐을 타고 국내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추세고요. 이런 분위기를 업고 최근 5년 정도는 해외 도서전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비를 보전해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해외 도서전에 참여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그림책 출판사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출판이야말로 어느 나라나 자기들 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무척 보수적인 콘텐츠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듭니다.

Q. 현재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 독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나요?

성인들은 전자책에, 아이들은 웹툰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지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펜으로 눌러서 다른 이야기를 고르거나 실제 음성으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 제작 업체의 홍보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건 업계의 분위기일 뿐, 사실 어린이들은 디지털로 책을 읽고 싶어 하진 않아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디지털 도구가 있을 시 거기에 걸맞은 다른 콘텐츠 -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 를 즐기고 싶어하지요.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에, 디지털 그림책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볼 때, 스마트폰에서 볼 때, 그림 비율이나 텍스트의 위치가 현저히 달라져 의미 연결이 안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판형이 제각각인 그림책을 하나로 통일해 버리면 그림책의 맛을 살릴 수 없겠지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성인 대상의 전자책이 매년 성장하는 데 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시장은 답보 상태인 건 이처럼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큼니다.

또 얼마 전 알라딘*에서 대규모 콘텐츠 유출이 있었듯, 안전 장치도 미흡합니다.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는 한 번 유출되면 수습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작가나 화가는 물론, 영세한 출판사 입장에서 는 미디어 그림책을 만드는 게 꺼려질 수 없지요. 그래서 아직은 그나마 안정적인 전자책, 오디오북 정도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어린이 출판사들은 디지털 도서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
*알라딘: 한국의 대형 온라인 서점으로 책, DVD, 음반등을 판매하고 있다.

어른의 눈, 아이의 이야기

펜으로 전하는 그림책의 향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아동 문학, 특히 그림책 분야의 출판과 수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그림책은 더 많은 작가와 독자를 유치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새로운 독자층을 확대해야만 우리 아동 문학계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책 시장과 독자들의 취향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 그림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의 깊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림책은 맑고 아름다운 회화적 요소와 언어를 통해, 미학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림책을 읽으며 이야기에 반영된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가치관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독자는 단순히 저자와 편집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미리 정해진 의미만 전달받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선호도, 동기, 감정에 부합하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여 보다 풍성한 문학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어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아동 문학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면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문학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은 책의 문학과 예술성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의 이해도나 정서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주제를 다루며 세심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

에디터의 북 큐레이션

우리 함께 읽는 그림책

”



안녕하세요, 『모험의 서재』 대장 북 큐레이터 한복두입니다.

창의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이 어우러진 그림책과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를 선별하여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모두 아우르는, 즉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들의 아기자기한 매력을 전달하고, 함께 읽는 분들이 이 모험의 서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림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주 커다란 물고기』 | 글, 그림: 조경숙 | 스푼북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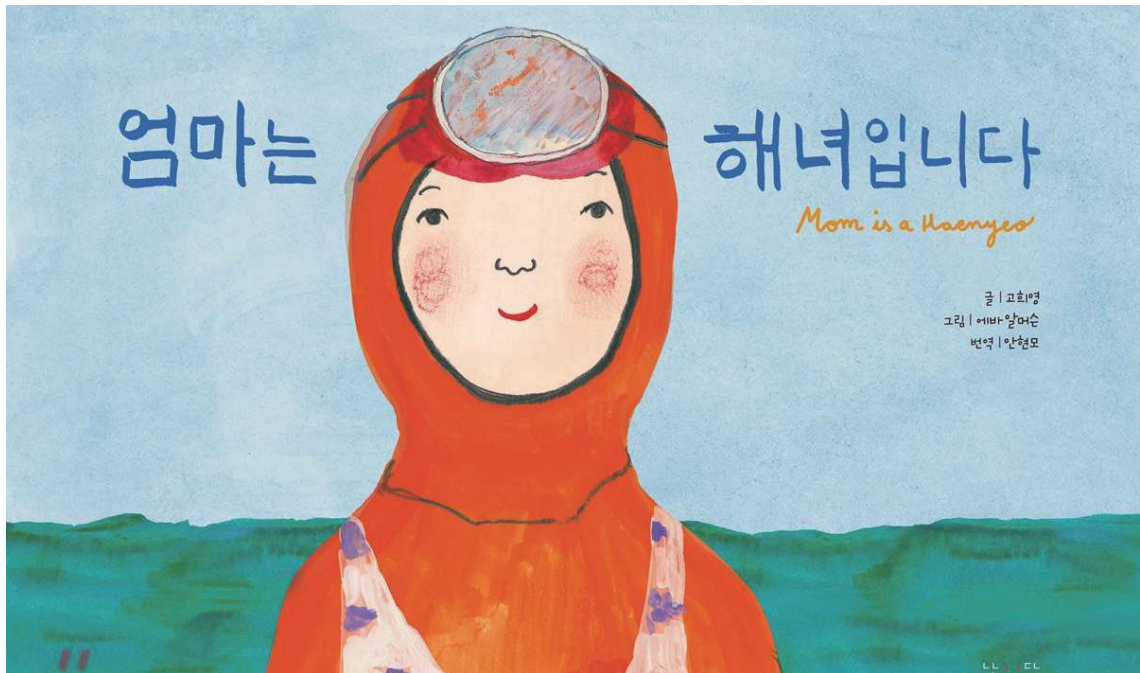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성장 이야기

늑대와 빨간 물고기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바다를 동경하던 늑대는 자신이 정성스레 만든 배 위에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피리를 불고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갑자기 빨간 물고기가 늑대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더 크고, 빨랐으면 좋겠어. 다른 배들처럼 말이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늑대가 가진 작은 것들을 비웃으며,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며 욕심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게다가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이 종이 위에 표현되어 거칠거나 온화한 질감이 섬세하게 느껴지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귓가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 스푼북



© 난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 글 : 고희영, 그림 : 에바알머슨 | 난다 | 2017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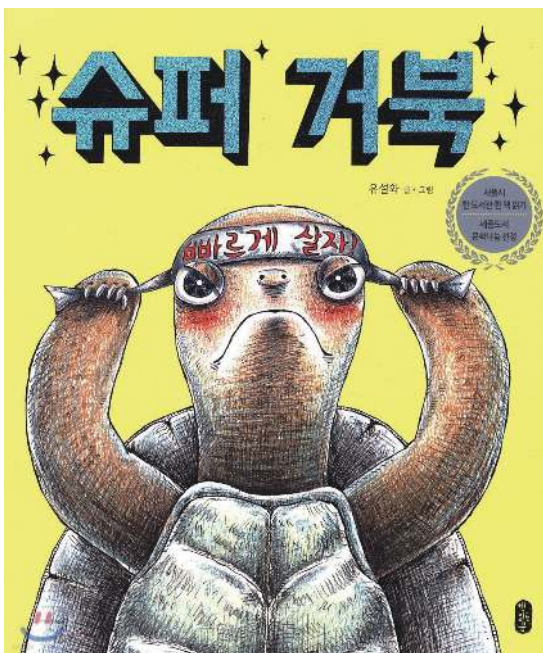
해녀 엄마가 그녀의 딸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그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인생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제주 출신 고희영 작가는 해녀 삼대의 이야기를 손녀의 시점에서 펼쳐냅니다. 해녀의 일생을 담아내는 바다와 엄마의 삶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그림책입니다.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Eva Armisen)의 붓터치를 통해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고 따스하게 전해집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섬 중 하나로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독특한 문화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해녀 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해녀는 호흡을 돕는 장비의 도움 없이 물속에서 머무는 개인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만의 약속이라고 하죠.

『슈퍼 거북』 | 글, 그림 : 유설화 | 책읽는곰 | 2018

거북이는 거북이 답게, 토끼는 토끼 답게, 나는 나답게!

© 책읽는곰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풀어나갑니다. 경주에서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경주가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거북이는 ‘슈퍼 거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거북이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 바쁘게 달리는 거북이의 아등바등 생존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네? 거북이 씨 뭐라구요? 사실 당신은 예전처럼 천천히 걷고 싶다고요...?

저마다의 모습을 인정하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발걸음을 내딛고 당당한 태도와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그림책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기보다 자신 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북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쾌한 웃음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면지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마음의 책꽃을 가꿔주는 정원사』

이수지 작가 특집

‘책꽃’은 책 속에 담긴 지식과 지혜가 우리 마음을 자라나게 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책이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책꽃을 통해 영감을 받고, 성장하며, 감동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모험의 서재』 창간호에서는, 마음 꽃밭의 대표적인 한국 정원사 중 한명인 이수지 작가를 소개합니다.



© Suzy Lee

"저는 작품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만을 위한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들도 각자의 관점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똥 발랄하면서도 조금 오싷한 『토끼들의 밤』은 스위스 출판사 La joie de lire에서 2003년 『토끼들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 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2022년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 2019년 한국출판문화상, 2008년 뉴욕 타임스 우수 그림책 선정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현실과 판타지 세계를 넘나들며 아이들의 심리를 밀도 있고, 생생하게 담아낸 이수지의 작품들은 전 세계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풍부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그림책에는 엄청난 세계가 들어 있잖아요"

이수지 작가는 그림책은 작지만, 손에 쥔 순간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까지 그 안에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세상 그 어떤 도전도 온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창조적으로 그림책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녀는 많은 한국 그림책 작가들이 여전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한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고개 넘어 고개』
히토끼프레스, 2020



『여름이 온다』
비룡소, 2021



『파도야 놀자』
비룡소, 2017

우리 한국의 옛이야기가 담고 있는 풍부한 함의, 다양한 문화 코드,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도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산이 많은 지형 덕에 우리 옛이야기는 유난히 고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따라 이 고개엔 뭘 일이 이리도 많다냐!” 주인공 아이의 말처럼, 인간이 동식물, 초자연적 존재와 얽혀 펼쳐는 이야기들을 엮어 넣었습니다. 병풍식 제본으로, 책을 펴서 세우면 굽이굽이 다섯 고개가 겹쳐 장관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책입니다.

비발디 『사계』 중 「여름」에 모티브를 둔 아름답고 강렬한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주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성으로 되어 아이들과 물, 음악을 그림으로 느껴보는 싱그럽고 생명력 넘치는 여름 이야기입니다. 사계의 구성에 따라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3악장으로 나누어지며, 각 악장은 서로 다른 그림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또 이 책의 컨셉과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QR 코드도 있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놀러간 소녀와 파도의 서사가 글자 없이 그림만으로 펼쳐집니다. 어린 소녀의 시선과 기대와 두려움, 즐거움, 교감 등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옆으로 긴 판형과 충분한 여백은 한적하고 넓은 바닷가에서의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아이의 심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변화, 앞뒤 면지의 차이 등 꼼꼼하게 살펴보면 곳곳에 재미난 대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

그림책을 품은 책방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복합 문화 공간

”



프랑스 그림책을 여는 순간

한-불 통번역가 이슬아 책방지기와의 만남

그림책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린이에게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거나 도덕적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림책도 있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감정, 생각, 그리고 상상력을 공유하게 하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그림책들은 글과 그림의 경계를 허물고 실험적인 양식을 많이 시도합니다. 주제의 측면에서도, 우정, 가족, 자연과 같은 보편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인종, 종교, 차별, 죽음이나 심지어 현대 사회 문제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거나 복잡한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죠.

한편, 국내 출판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번역서 그림책들을 접하다 보면 ‘번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그림책은 사랑스러운 그림과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며 세상과의 유쾌한 연결을 도모한다는 점이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체시킨 것이 아니라 타문화에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자면 아동 문학의 번역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림책 원본 텍스트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왜곡한 번역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적절한 의역은 물론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독자의 이해도와 책의 예술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곤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현대 소설가인 필리프 베송의 신작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레모출판사)가 2024년 3월 출간되었습니다. 여성 살해의 참혹한 현실과 가정 폭력 희생자들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조명하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가혹한 주제를 담아낸 소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들의 시각으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담아낸 번역이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번역하신 이슬아 선생님의 배경을 알아보다 한-불 통번역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프랑스 그림책 전문 책방, ‘책방 리브레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 제 문학적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곧바로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 여유당



© 레모출판사

Q.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불 통역사 이슬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뒤 13년째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코리아헤럴드 학원에서 통번역 대학원 입시 수업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6년부터 KBS World Radio에서 기자로 일했고, 2018년부터는 프랑스 청취자들에게 케이팝을 알리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을 찾는 프랑스 영화감독과 작가, 예술가들 기자회견과 관객과의 만남 통역하고 있어요.



책장 사이로 열리는 책방안의 또 다른 공간



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프랑스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러다 2019년 그림책 작가 뱀자맹 쇼의 기자회견과 작가와의 만남 통역을 한 인연으로 뱀자맹 쇼 작가님의 『두더지와 들쥐』 그림책 번역을 하게 되었죠. 그림책의 매력에 빠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작가나 작품들을 알리고 싶어서 프랑스 그림책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Q. 그림책이나 아동 문학을 번역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림책은 그림과 텍스트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 번역을 한 뒤에도 충분히 각자의 매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합니다. 프랑스 그림책 작가들은 독자층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쉽고 단순한 어휘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두더지와 들쥐』의 글을 쓴 앙리 뒤톤에 작가님의 경우, 작가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작가님이 원하는 단어들을 사용해 전달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나 은유적인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런 작가님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린이 독자가 읽을 때 어렵지 않게 읽고 이야기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해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Q. 그림책을 번역할 때, 문학적 완성도 추구하고 독자와의 소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나요? 원어의 문학적인 표현을 독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하나요?

제가 살펴본 국내 그림책 오역 사례들은 지나친 의역으로 인한 문제보다 원문의 왜곡이나 누락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림책 원작자가 한 페이지에 얼마 되지 않은 문장에 쓰이는 단어들을 얼마나 고심해 골랐을 지 생각하면 오역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요.

영어와 달리 프랑스어를 하는 편집자가 많지 않다 보니 번역가가 원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역을 해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한국어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역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쌓여 결국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의 메시지도 퇴색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요.

원문으로 쓰인 그림책 스토리와 메시지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한국어로 읽는 독자들이 번역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적 거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게 번역가의 일인 것 같습니다. 번역가라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림책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실력을 항상 의심하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로 실력을 키워 나가 그림책을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번역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 조명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밝혀주며 독서 분위기를 조성

Q. 책방지기로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책들은 무엇인가요?

책방 리브레리에 들어와 그림책을 펼치면,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넘나들며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도 글도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을 탈피한

책, 여행하는 설렘을 안겨주는 책들을 골라서 선보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해방감을 선사하는 하는 책들을 애정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책방 팝업 북 가운데, 『곰 조제와의 일년』이라는 뻔한 전개를 탈피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재혼가정)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책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짧게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배고프고 외로운 곰 조제가 추운 겨울 길을 헤매다 자신에게 오렌지를 나누어 주는 조지를 만나요. 조지는 조제를 자신이 지내는 굴로 데려가 그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두 마리 새끼 곰을 조제에게 소개하죠. 그렇게 만나 식구가 된 네 마리 곰이 서로에게 기대며 일년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손님이 이 책을 보고 엄마가 ‘외간 남자를 데려왔네’라며 농담을 하셨죠. 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행복을 가져온 새로운 만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죠. 이렇게 독자에게 은연중에 스며들며 자신도 몰랐던 편견을 자각하게 해주는 그림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Q. 책방 리브레리에서는 어떻게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의 그림책 독서 참여를 장려하시나요?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프랑스어를 좋아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주 드물기에 책방리브레리를 발견하고, 찾아와



정갈한 책방,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환영하는 책방지기의 모습

주시는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림책은 뭐니뭐니 해도 직접 보고 만져봐야 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책방에서 일하는 날 열심히 그림책을 읽어서 책방 리브레리 인스타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직접 듣고 보는 경험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진심을 담아 읽고 촬영해서 그림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프랑스 그림책이 전시된 공간



Q. 그림책을 교육적 용도로만 읽는다면 정말 아쉽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토미 웅거러 작가님은 “나는 내 안의 아이를 즐겁게 하고 선입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그림책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림책이 아이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 그림책이 우리의 선입견을 날려 세상을 편견없이 볼 수 있게 눈과 마음을 씻어 준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선사하는 즐거움이라는 귀한 선물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앗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적 가교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고 문학의 감동을 전하는 풍요

보통 그림책은 텍스트가 짧고 단순하고 어휘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번역하기 쉬워 보이지만, 어린이 독자와 해외 문학의 첫 만남을 주선한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원작에 나타난 이국적인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책을 끝까지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눈 높이와 언어적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번역을 제공하고 원작의 문학적인 생동감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가는 문학적인 감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번역가는 어린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독서욕구를 높일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다양한 문화적 맥락도 고려하여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지요.

책방 리브레리는 단순히 서적을 구매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즐기거나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베스트셀러, 유명 작가 위주의 큐레이션을 운영하는 대형 서점들과는 다르게 프랑스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림책 읽기 클래스나 출판 기념회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마치 문학적 모험을 선사하고도 있죠.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으로 그 자체로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번역가, 책방지기, 엄마로서 이슬아 선생님과 만남은 “아이를 위한 책을 가장 잘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책방이라는 공간이 ‘자녀’를 위한 독서에서 ‘나’를 위한 독서로 여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만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써 어른들에게는 문학적 영감을 받고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림책 세상으로 떠나는 여정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소개



예술과 독서의 세계로 초대하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외부 전경

독특한 구조의 공간으로, 상상력을 자극할 것 같은 미술관 내부



책 속의 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곳

한국 현대어린이책 미술관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국내 최초 '책'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관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문화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창작 워크숍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토리에 담긴 의미와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마법의 열쇠처럼, 책과 미술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미술관에서는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겨냥한 정적인 미술관과 달리 행복하고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계심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림책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성인들도 다양한 이야기와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II. 어른과 아이의 대화: 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부모와 아이가 미술관을 함께 즐기며 창의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현재 진행중인 기획전 『언-프린트드 아이디어』(2024. 3. 5 - 6. 30)은 ‘친구’, ‘자연과 사람’, ‘글이 없는 그림책’을 주제로 한 7명의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감상하고, 살펴보며 문학의 세계와 미술의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작가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작가의 말과 상상이 차곡차곡 쌓여 그림책이라는 결과로 관람객들의 손과 눈에 닿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직 사람들에게 닿지 못한 작품들을 찾아 전시실로 꺼내, 작품 원화, 작업 과정을 재조명하고, 작품과 연계된 공간 경험과 체험 활동으로 작품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설명 자료는 전시 공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 관람객의 방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나 흥미 유발, 창의력 발휘를 도와주는 종이 접기, 인형 놀이, 도슨트, 증강 현실 등 다양한 전시해설 매체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그림책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들만의 해석과 시선을 넓혀줄 수 있겠죠.

따라서 현대어린이책 미술관은 어린이가 감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혹은 일반 성인 관람객들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하며 문화적, 예술적인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책 읽기와 만들기 아뜰리에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

세계 어린이와 만나는 책의 날개

한국 아동 문학의 국제 교류를 위한 활동

”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한국과 프랑스의 그림책

한국 그림책이 세계를 향해 걷는 길

KBBY 심향분 전임회장과의 대화

그림책은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합니다. 특정 문화나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나 전통이 그림책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가나 삽화가가 자신의 문화나 경험을 작품 안에 담아내다 보니 같은 주제라도 문화권마다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그림책에서 주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념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림책은 문화의 보물상자처럼, 아이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보물을 발견하고 배움으로써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을 통해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KBBY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회의 한국위원회) 6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심향분 교수님을 찾아 뵙고 인터뷰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11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주프랑스 한국교육원, KBBY와 공동으로 제1회 한-프 그림책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인 한지와 먹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혜원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프랑스 현지에 한국 그림책을 소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죠. 특히 경 작가의 『나는 사자』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그녀의 그림책 작업 방식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행사에 동행하신 KBBY의 심향분 전임 회장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림책이라는 공통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심향분 교수님은 그림책 연구자이며, KBBY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확장에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KBBY

Q. KBBY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5년에 설립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회의 한국위원회인KBBY(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는 한국 아동·청소년 도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동청소년도서문화에 관한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수집과 공유의 중심부 역할을 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죠. 한국 아동·청소년도서의 관계자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모든 활동도 지원합니다. 특히 그림책 번역 대회, 그림책 축제, 한글학교 도서 기증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 국제 교류를 추진하죠.

그 중에서도, 국제 아동 문학상에 꾸준히 우리 작가와 작품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게 소개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아동문학상은 작품의 예술성을 보기에 상을 받는다고 바로 세계 각국으로 번역돼서 수출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흔히 말해 '잘 팔리는 책'은 작품의 대중성이 중요한 거라서요... 아무튼, 점점 많은 한국 작가들이



2022년 제1회 한-프 그림책 축제 -경혜원 작가와의 만남

국제 아동 문학상을 받으려면 언어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류들이 단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교류는 단발적으로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그림책이 세계 곳곳에 좀 더 알려지고,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해요. 특히, 프랑스는 현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를 보급하고 그 책을 가지고 공간 나눌 수 있는 문학의 장, 전시나 강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Q. 한국 그림책 시장이 가지는 특징이 있나요?

우리나라 그림책들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보니, 기성 작가 보다는 신진 작가가 많아 새로운 시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 문학 시장이 견고하게 형성이 된 경우는, 신진 작가가 과감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이미 탄탄하게 쌓여 있는 기성 작가들,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작품’ (성고가 확실한 작품을 창작)으로 채워져 나간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현재 독립출판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수지 작가를 필두로 20명이나 몇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작가들이 직접 독립출판을 운영해보자는 ‘바캉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이수지 작가의 『고개 너머 고개』라는 책은 물성적 특성으로 우리나라 산을 알아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이 규모가 큰 산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풍경이 아마 프랑스에는 없을 거예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판형이 특이하고 일반 출판도 아닌데도 15000원으로 별로 비싸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독립출판사에서 낸 책이 다시 대형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이 되기도 해요. 이런 그림책들은 보통 서울국제도서관에서 오픈을 하거든요. 그때 대형 출판사 편집자들이 엄청 관심 보이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로 출간된 책들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출판 경로라고 볼 수 있어요. 창의적인 시도들이 허용되는 분위기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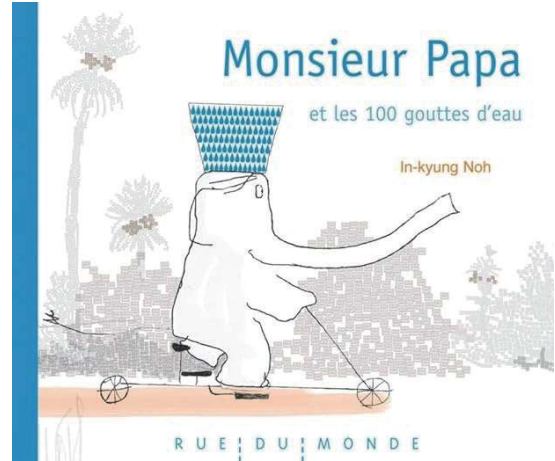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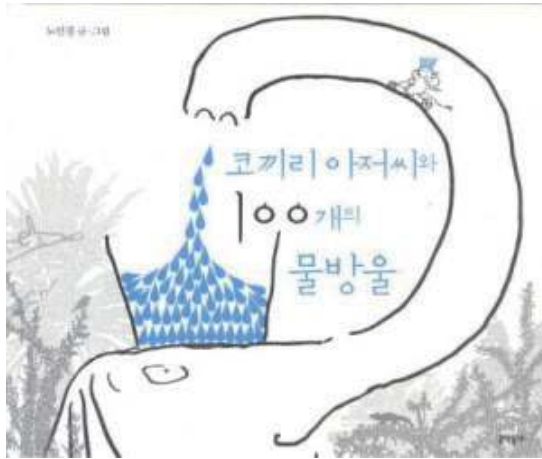
Q. 해외에 어떤 그림책들이 소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해외 독자들에게 아주 지극히 ‘우리’스러운 것 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의 스타일로 다가가야 설득력이 있고 그들도 매력 있다고 느껴요. 그림의 기법이나 재료가 한국적이어도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책으로 선정되는 책인데도 수출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너무 ‘한국적’이래요. 물론 그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도 중요하지만, 수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 독자와 정서적 교감을 구축하는 능력이었죠.



2022년 제1회 한-프 그림책 축제 - 한국 그림책 전시





Q. 해외로 소개되는 교류작들에서 나타나는 문화, 사회적 차이들은 어떻게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노인경 작가의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이 프랑스에서는 『Monsieur papa et les 100 gouttes d'eau』(미스터 아빠와 100개의 물방울)라고 출판되었어요. 아빠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주는 내용이죠. 한국에서는 원래 글이 거의 없는 그림책인데 프랑스 책에는 주인공의 심리와 상황을 서술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목에서 코끼리는 그냥 '아저씨'인데, 프랑스 제목에서는 코끼리를 '아빠'라는 초점에 맞췄어요.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프랑스에서는 더 가족적, 공동체적 문화를 부각하고 있죠. 프랑스 교육에서는 개인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의 약

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며,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강조한다고 들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문화였지만, 현재는 개인의 성찰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경혜원 작가의 『나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나는 사자'로 시작이 돼서 '우리는 사자'로 끝나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프랑스 독자들은 '우리는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키워낸다고 많이 읽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자들은 그 공동체를 보지 않고 '여성의 능력', '엄마는 강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동체를 강요하는 부분들이 우

© 비룡소



리에게 은연중에 압박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여성의 독립적, 개인적 성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일하는 아빠’가 그림책에 자주 등장해요. 퇴근 후 늦게 오는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고 함께하는 아빠보다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프랑스 출판계에서는 ‘아빠가 일하는 걸 왜 그림책에 담느냐며 회의적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아빠의 모습을 왜 아이들한테 강조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일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뉘앙스가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림책에서 바쁜 아빠의 모습을 봐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감동적이지요. 아빠가 늘 바빠서 못 놀아주지만 아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대견할 따름이고요. 또한 아빠와

© 책읽는곰



딸이 나오는 그림책에서는, ‘서투른 아버지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크다’라며 아빠가 노력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듯 그림책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문화가 녹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만, 그 문화권을 벗어나는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낯선 감성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수단이 그림책이에요. 어느 사회에 가나 가족과 친구는 있고 ‘나’에 대한 어떤 성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재밌는 법이지요.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림 언어 그림, 화법으로 나타나는데 독창적일 수 밖에 없어요.

Q. 한국-프랑스 그림책 축제가 2022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회차 축제는 어떤 행사를 예상하시나요?

2022년 프랑스 그림책 축제 1회차에는 파리 한국 문화원에서 낭송, 작가와의 만남과 같은 문학 행사를 진행했죠. 2회차에는 파리, 뚜르, 디종과 같은 여러 도시들을 거치며 해마다 색다른 시도를 통해 점점 프랑스 전역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올해 프랑스에서 진행될 그림책 축제 3회차는 우리가 뭔가를 세팅을 해서 가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1회차 때는 우리 측에서 한국 작가를 추천했던 것인데, 작년에 2회차에는 뚜르 대학 측에서 궁금해 하는 작가들과 동행했어요. 물론 우리가 책 리스트를 먼저 보냈고, 그쪽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선택했겠죠. 우리가 선정한 작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작가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함께 갔던 한국 작가는 지금 프랑스 출판사랑 출간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뚜르 도서관에서 너무나 정성 들어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프랑스 작가님이 올 9월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우리도 프랑스에 가서 우리 그림책 이야기를 했듯이 프랑스 작가님들 모시고 같이 프랑스 그림책 이야기를 나눠보며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문화, 문화 교류가 될 것 같아요.

2023년 제2회 한-프 그림책 축제 포스터





Q. 책 소비의 주체인 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책은 어떤 건가요?

최근 그림책 출판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판매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 문학 교육은 아이들의 역량 향상을 강조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물론 정부 교육의 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독서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보성 책을 우선으로 읽어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문해력, 즉 독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추세인 것처럼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들의 시선도 변화하고 있어요. 좋은 책들이 학교 도서관으로 보급되고, 다양한 책방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이제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강연이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학 운동은 앞으로 더 많은 독서와 교육 문화를 발전시키고,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책 문화와 교육 현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대를 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그림책들과의 만남

더 새로운 문학 예술 창작을 모색하다

요즘 한국의 그림책은 세계 출판 시장과 국제 아동 문학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원작의 문화적 요소를 보존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림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독자들과 만날 때,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책에서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낯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나 문화권마다 아동들에 대한 추구하는 가치나 교육적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문학의 작품성이나 의도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그림책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잘 담아 내면서도 외국 독자들에게 보편적인 감정을 자아낼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하고 상상력, 창의력,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그림책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의 삶과 맞닿은 주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면, 그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들이 강조하는 문학적 가치나 교육적 요소보다, 결국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며 능동적인 독서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림책은 더 이상 종이책에 머물지 않고 굿즈,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으로 활용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각 장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림책이 어느 장르보다 시각 예술로 전환이 쉽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인 핸드폰 속 영상보다 무미건조한 종이 책을 읽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이 독자들이 종이 그림책을 더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향상시키고, 책을 소비하는 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

책과 이야기의 즐거운 모험을 더 가까이에서

한국 어린이 도서관 소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외부 전경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외부 전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서울의 교통 중심 강남구에 위치한 종합적인 문화 공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도서와 자료를 찾아보고, 교사들은 학습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지적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독자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소설, 전집, 참고도서, 만화책 등 다양한 어린이용과 청소년용 도서 및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낭독을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 참여도와 창의력과 감성을 키워줍니다. 게다가 꾸준히 다양한 주제와 컨셉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요, 최근에는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2023.10.20 - 2024. 3.31) 라는 프란치스카 비어만(Franziska Biermann) 작가의 원화와 도서 및 독일 작가들의 수상작과 그림책 소개하는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은 다양한 해외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부 모습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이하여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게다가 서울 문화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 주변에 많은 역사적인 명소가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어렸을 때 벗 삼은 책은 꿈을 키우는 평생 친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어린이들에게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게 돕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게끔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마스코트로 ‘다독이’가 있습니다. 다독이는 눈처럼 밝은 몸과 반딧불처럼 빛나는 더듬이로 아이들의 꿈을 비추주고, 아이들의 꿈을 모아 이야기책을 만드는 책의 요정입니다. 한편,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의 ‘다독’과 어린이들을 ‘다독여준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1979년 개관식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2024년 현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목장 밖은 위험해: 늑대야 놀자!」 동극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동극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유명한 어린이 동화나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공연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캐릭터들의 활약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며, 학교 교육을 보충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지적, 감성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에 지식과 지혜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어린이 도서관에서 쌓아보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내부 모습



“

멋는 말

발행인의 편지

”



어른의 보살핌, 아이의 상상력

그림책은 가정이나 어린이집 어디에나 존재하며 개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 초기, 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문학적 뿌리를 구축하며 아이가 꿈을 꾸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동 독자가 집안에서의 독서 환경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사회 생활을 통해 풍부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가져야고, 그림책을 자주 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문학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다방면으로 체험케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동 문학, 특히 그림책이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작은 성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잡지는 ‘그림책 읽기’라는 문학 경험이 아동의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책 세상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더 넓은 우주로 뛰어 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이들이 세상에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어른이 그림책을 읽어 주기에, 읽고 듣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함께 그림책의 세계를 여행하고 즐거움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문화자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아이가 유아기에 아동문학의 매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아동 도서 관련 전문가들은 마치 새싹들을 돌보는 정원사와 같이 삶의 기반이 될 문학의 씨앗을 심고 성장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림책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세상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해주며, 그들이 창의적이고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사랑과 꿈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함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안내



정가 7,000원

정기 구독료(종이신문+온라인)

1년 84,000원 → 77.000원

6개월 42,000원 → 36.000원

구독 신청

전화 : +82 10-3370-5038

메일 : gudok@adventurelibrary2024.co.kr

해외 구독신청

전화 : +33 7 68 96 73 56

메일 : abonnement@adventurelibrary2024.fr

은행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모험의서재

ND녹두뱅크 2013-20744-2024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

6개월 이상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신규 정기구독자에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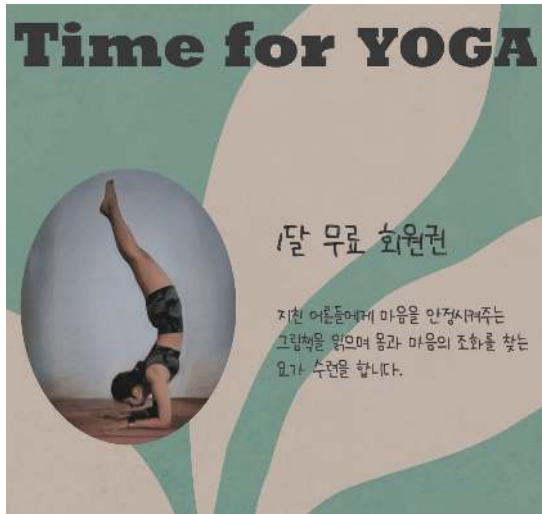
(원하시는 선물 택 1, 각 1개)

그리미 요가원 1달 무료 회원권 선물 이벤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림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는 요가 수련을 합니다. 요가와 그림책을 통해 몸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동시에 풍부한 상상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매트 위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보세요!

신규 구독자 대상 랜덤 그림책 선물 이벤트!

한국과 프랑스에서 발행된 풍성한 그림과 이야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림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훌륭한 그림책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한국과 프랑스에서 발행된 아름다운 이야기와 멋진 그림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참고 문헌

”

- 양혜영. (2023). 그림책 선정기준에 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4(2), 1-25.
- 권종애. (2018). 국내 유아그림책 출판 현황 연구. *인문사회* 21, 9(5), 619-634.
- 김민진. (2009). 그림책 읽기 방식과 연령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도와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1), 207-231.
- 이차숙. (2015). 그림책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연구*, 35(4), 149-172.
- 조희숙. (2006). 유아의 그림책텍스트 이해 연구: 아이콘적 텍스트와 언어적 텍스트 사이의 격차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273-290.
- 방미영, 홍동식. (2024). 글 없는 그림책의 ‘그림 읽기’ 요소와 체계화. *디자인학연구*, 37(1), 339-351.
- 나선희. (2013). 그림책 서사에서 그림의 색이 갖는 의미. *문학교육학*, 41, 205-237.
- 심향분. (2022). 시각예술분야 학술지에 실린 그림책 연구에 관한 탐구: 1986-2018.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2), 157-175.
- 심향분. (2019). 영아그림책의 시각적 표현 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탐구 : 한국과 프랑스 수세기 개념그림책.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21-40.
- 홍찬석 and 김현민. (2003). 동화책 캐릭터에 있어서 어린이의 감성요인과 색채선호도 추출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1), 410-419.
- 윤선영 and 정운정. (2019). 어린이미술관의 전시해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를 중심으로 -. *전시디자인연구*, 16(2), 81-91.
- 선주원. (2009). 어린이 문학교육의 현상과 발전 과제. *한국초등국어교육*, 39, 291-320.
- 김정용. (2012). 아동 청소년 문학 번역의 특수성과 오류 분석. *독어교육*, 55(55), 237-261.

웹 사이트

스폰북 공식 블로그

: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40437697>

웅진 주니어 지수의 북칼럼

: https://blog.naver.com/wj_junior/110149560579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

: <http://colordesign.ewha.ac.kr/colordesign/main/main.php#>

이수지 작가

: 작은 그림책이 멋진 이유... 엄청난 세계가 들어 있잖아요 (daum.net)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moka.org/main/index.do>

책방 리브레리 SNS 공식 계정

: https://www.instagram.com/chaekbang_librairie/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Centre Culturel Coréen à Paris | Paris (coree-culture.org)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lcy.go.kr/NLCY/main/index.do>

KBBY 공식 홈페이지

: <https://kbby.org/>

Ricochet

: La création coréenne pour la jeunesse dans l'édition francophone contemporaine (ricochet-jeunes.org)

사진 자료

출처: [사진 제공자 또는 웹사이트 이름]



© 정민혜 _ 책장 속의 보물들

일상의 지루함에 지치고 희망 없는 현실에 멈춰 있다면 지금 그림책을 펼쳐보세요. 마치 어릴 적 그림책 속으로 떠나는 모험을 즐겼던 것처럼, 이제는 그림책 세계에서 새로운 꿈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모험의 서재 — 어른들의 그림책 여행기』는 아동 문학을 통해 어린이들의 세계에 다가가는 동시에, 어른들의 감수성과 성숙한 시각을 고려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책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발행일 2024년 6월 1일

발행인. 편집위원. 번역위원. 아트 디렉터. 구독관리 한지수